

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어반플레이

골목길 가게와 콘텐츠 기술의 만남, 도시가 따뜻하고 유쾌해졌다

글 서미희 객원기자(markers@techm.kr)



우리나라에서 도시 관련 콘텐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2013년 12월 법인을 설립해 기업 운영 5년 차에 들어선 '어반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다. 어반플레이는 도시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발굴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이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위워크 을지로점에서 제일 큰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 수도 상근, 비상근을 합쳐 70명 정도다.

어반플레이는 도시에 숨겨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로컬 큐레이터 등의 문화기획자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콘텐츠를 아카이브 하는 작업 등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

어반플레이는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콘텐츠경험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디오 네비게이션 콘텐츠 매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앨리스 원더랩'은 맵 기술 개발, 아카이빙, 서비스화, 시스템 개발은 어반플

레이가 맡았다.

앨리스 원더랩은 골목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스타트업이다.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올린다. 구글 3D 뷰어 같은 형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동영상으로 찍은 도시 지도에 콘텐츠를 얹는 것이 어반플레이의 역할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과제로 '도시 매핑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매핑 기술에 덧입힐 수 있는 콘텐츠도 풍부해졌다. 현재 매핑 기술을 바탕으로 '워크 플레이'를 베타 오픈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연남동에서 '워크 플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걸으면서 연남동 맛집,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있는 소품 가게, 사진 찍기 좋은 카페 등이 3D로 뜨는 방식이다. 지도에 스토리가 있는 도시 콘텐츠를 접목시켜 똑똑한 '워크플레이'가 탄생했다.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앨리스 원더랩이 맡고 콘텐츠 매칭과 아카이빙 등의 설계 구현은 어반플레이가 함께 해 시너지가 난 사례다.

젠트리피케이션 해결하는 도시 문화 콘텐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상권이 뜨면서 덩달아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토박이 상가들이 밀려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홍주식 어반플레이 대표는 한

양대에서 건축학을,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문화기술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내 공동체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 홍 대표. 특색 있는 상점이나 동네만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발굴하고 재미있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아겠다는 그의 생각은 '어반플레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정치, 사회, 조직, 행정적인 문제 등 무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적정기술에 대한 화두를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을 특색 있게 만드는 '창작자'에 주목했다. 연남동, 해방촌에는 예술가들이 많고 그 동네의 직업살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어반플레이와 앨리스 원더랩이 협력해 개발한 워크플레이 '앨리스 맵'.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현재 위치에서의 맛집과 명소 정보가 3D로 뜬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의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 [사진=어반플레이]



서울 서대문 연희동을 배경으로 한 '연희 걷다'는 어반플레이의 대표 프로젝트다. [사진=어반플레이]

어내고 있다. 소소한 살거리, 볼거리는 바로 지역 기반 소상공인들과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그 동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몰리게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반플레이는 콘텐츠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일반 카페나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전시와 같은 것들이다.

어반플레이의 대표 프로젝트는 서울 서대문 연희동을 배경으로 한 '연희 걷다'.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 주민들이 모여 음악 공연, 작품 전시 등을 여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35명의 공예미술 작가들이 주축이 돼 연희동 내 11개 장소에서 기획전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연남동을 배경으로 한 '연남 워크'를 진행했고, 11월에는 북촌이나 성수동을 배경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다.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 어반플레이의 슬로건이다. 홍 대표는 "현대 도시들은 보여주기식 건축물만 있을 뿐,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반플레이를 통해 그 빈 공간을 채워 줄 '소프트웨어'를 발굴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반플레이의 프로젝트는 서울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대전 성심당, 50년 된 피터팬 제과점 등을 포함해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 지, 둘러야 할 명소는 어떤 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콘텐츠 DB는 어반플레이의 자랑이다. 도시 콘텐츠 DB를 촘촘히 쌓는 것 외에도 도시문화 웹 매거진 '어반폴리'의 오프라인 매거진 발행도 앞두고 있다. ❶

INTERVIEW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

“콘텐츠 기술로 도시 속 숨겨진 가치 발견”

어반플레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어반플레이는 도시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어반플레이는 '도시에도 OS(Operating System)가 필요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도시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콘텐츠에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를 융복합 기술을 통해 다채로운 콘텐츠에 담아내고 알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운영체제(OS)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문화콘텐츠 시장의 잠재적 시장가치와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콘텐츠와 도시를 연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도시는 대부분 시설 인프라 즉,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개발, 도시 계획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 안의 콘텐츠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공간이든 도시든 그것을 채우고 운영하는 건 콘텐츠입니다. 스마트 도시에 살며 기술이 많이 부각되지만 기술이 발전되면 항상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방향,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우선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반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하기에 초반에 많은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의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거나 향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업하고 계신 기업과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골목동영상 매핑기업 '앨리스 원더랩', 공간 공유 서비스 '스페이스 클라우드' 등과는 MOU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앨리스 원더랩과는 가상여행서비스를 1년 정도 준비 중에 있으며, '스페이스 클라우드'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휴공간에 콘텐츠를 매칭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크리에이터(창작자)들과 여러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크리에이터 데이'도 함께 주최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두 분, 인디 뮤지션 두 팀을 불러 공연과 드로잉 쇼, 미디어 아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는 동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는 연희, 아는 연남에 이어 로컬 큐레이터를 선발해서 각 지역마다 누릴 수 있는 '도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축적한 도시 콘텐츠와 매핑 기술, IT 기술을 융합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누구나 도시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